

2공항 의견수렴 '따로따로'

도의회 갈등해소방안 채택
 8-9월 단계별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지사 면담 요구
 제주도는 공동조사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제주도와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매듭짓기 위해 도지사 면담 요구와 함께 직접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동조사 등의 방법론에서 의회와의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6일 도의회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추진 계획'을 채택했다. 특위는 1단계로 제2공항 갈등 해

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론조사 또는 심층어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는 1단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특위 활동을 제시하고 도민 의견에 따른 향후 진행방법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단체와 비상도민회 등 반대단체와 갈등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이달 1~2주에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3~4주에는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9월 초까지 추진 방안 결정 및 2단계 추진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의회의 추진 계획과는 다르게 찬반을 떠나 지역주민과의 직접 대화, 간담회 및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앞으로 두달 가량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의회와 따로따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또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철 위원장은 "특위가 1단계에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을 넣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방안을 제주도도 같이 해야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고 정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제기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강행과 공동조사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와 지사의 공식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위의 입장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공약추진지원단장은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찬반 입장을 묻는 의견수렴이나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제주도가 의견 수렴의 주체여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백택기기자



비양도와 협재 해변 6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변이 피서객으로 붐비는 가운데 비양도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다. 연합뉴스

코로나 여파 위기농인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창작활동·비대면 사업 전환... 16억90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8월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창작공간 대관료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확보한 16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예술인 창작활동 기획서 공모 지원사업(300건·3억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향후 예술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으로 창작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활동 예정인 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공모지원(100건·1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공연·전시 등에 대한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150건·4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민간 공연장, 전시장 등 공간 대관료(200건·1억원)를 비롯해 기존 예술인 복지사업

외에 추가로 비대면 온라인 발표 등 예술활동 컨설팅 진행(1500만원)과 민간 예술공간에 대한 방역물품(1000만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성·창의성에 기반한 소규모 전시·공연 등 기획 프로젝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7억1000만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영역을 활용한 '제주형 문화뉴노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택기기자 haru@ihalla.com

경기도의회도 4·3 완전해결 적극 지원

제주출신 김미숙 의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도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출신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사신)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35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



건입에도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며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도 출신으로서 4·3사건에 대한 아픔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9월에 열리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택기기자 haru@ihalla.com

올 상반기 제주지역 어획량·판매액 증가

전국적으로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제주지역 어획량과 판매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해양수산부와 통계청 등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36만9000t으로, 지난해 상반기(38만7000t)보다 4.6%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갈치가 전년 동기 대비 94.2%, 전

갱이류 76.9% 등이 증가했으며, 아귀는 40.4%, 삼치 23.5%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 금액은 전년(1조7248억원)보다 3.6% 증가한 1조7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어획량과 판매액 모두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 위관실적에 따르면 총어획량은 1만9859t, 판매금액 1838억62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 42% 상승했다.

특히 갈치 어획량의 경우 8715t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며, 판매금액 또한 1322억4500만원으로 86% 올랐다. 또한 제주지역 참조기 어획량은 59%, 판매금액 20% 올랐으며, 멸치의 경우 어획량은 61% 올랐으나 판매금액은 11% 감소했다. 반면 방어(66%), 옥돔(30%), 고등어(25%) 등은 어획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토·일요일자 신문입니다

www.jeju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해삼몸국의 특징

- 8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 잘 건조된 모자반을 찬 물에 불려 염분을 뺀 몸
-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우는 몸에 좋은 해삼
- 3월 철기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방법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랍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냄비 조리 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뚜껑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 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터질지 모르니 냄비의 무게를 달지 마십시오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70-4187-9000**

제조 판매인 **신한에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길 7-10